

2026년 6월 9 · 16일	
글 읽고	도스토예프스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대심문관」(제 2부 5장 5)
음악 듣고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 <현악 사중주 15번>
그림 보고	이반 크람스코이, <광야의 그리스도> 외
쓰기	대심문관 심문 참관 후기 쓰기

I. 글 읽기 : 도스토예프스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대심문관」(제 2부 5장 5)

- 표도르 빠블로비치 카라마조프 : 가장.
- 드미트리(미짜, 미젠까, 미찌까, 미뜨리) : 큰아들.
- 이반(바냐, 바네치까, 반까) : 둘째 아들.
- 알료샤(알렉세이, 알료쉬까) : 셋째 아들.

4. 번역

.....

「네가 건설한 건물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어린 희생자의 보상받을 길 없는 피 위에 세워진 행복을 받아들이는 데 동의하고 결국 받아들여서 영원히 행복해진다면 넌 그런 이념을 용납할 수 있겠니?」

「아뇨,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런데 형.」 알료샤는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형은 방금이 세상에 남을 용서할 수 있고 그럴 권리를 가진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죠? 하지만 그런 분은 존재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든 어떤 죄악이든 용서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그리고 모든 것을 대신해서 무고한 피를 스스로 내놓으셨기 때문이죠. 형은 그분을 잊고 계시지만, 건물은 그분을 토대로 만들어졌고 사람들은 그분을 향해 <주여, 당신이 옳았나이다. 이는 당신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라고 외칠 거예요..」

「아, <유일하게 죄를 짓지 않으신> 그분의 피! 아니, 난 그분에 대해서 잊은 적이 없어. 그와 반대로 네가 그분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 오랫동안 꺼내지 않는지 내내 놀라고 있었거든. 너희 수도사들은 논쟁을 할 때면 으레 그분을 맨 먼저 내세우지 않나. 그런데 알료샤, 비웃지 마라. 난 1년 전 언젠가 서사시를 한 편 지었단다. 내게 한 10분쯤 시간을 더 내줄 수 있다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서사시를 쓰셨다고요?」

「오, 아니야. 아직 쓴 것은 아니야..」 이반은 미소를 지었다. 「난 한평생 단 두 줄의 시도 지어 본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난 이 서사시를 지었고 또 기억하고 있단다. 강한 열의를 갖고 지어 냈지. 네가 나의 첫 독자, 아니, 경청자가 되는 셈이지. 사실 작가라면 단 한 사람의 독자라도 놓칠 리 있겠니?」 이반은 빙그레 웃었다. 「이야기해도 괜찮겠지?」

「무척 듣고 싶어요..」 알료샤가 말했다.

「내 서사시는 <대심문관>이라고 부르는데, 졸작이긴 하지만 네게 들려주고 싶구나..」

5. 대심문관

「그런데 여기서도 서론이 없이는 안 되겠지. 다시 말해서 문학적 서론이라고나 할까, 풋!」 이반은 코웃음을 쳤다. 「그러고 보니 내가 무슨 굉장한 작가가 된 셈이로군! 이 사건의 배경은 16세기인데, 물론 너도 학교에서 잘 배웠겠지만, 당시는 마침 시적인 작품 속에서 천상의 힘을 지상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유행하고 있었어. 굳이 단테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프랑스에서는 법원 서기들, 그리고 모든 수도원의 수도사들마저도 마돈나니 천사니 성인들이니 예수 그리스도니 심지어는 하느님까지 무대에 올리는 연극들을 공연하고 있었거든. 그런 연극들은 한결같이 대단히 소박한 형태였어. 빅토르 위고의 『파리의 노트르담』[66]이란 작품 속에는 루이 11세 시대에 왕세자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스럽고 지고하신 성모 마리아의 명판결 Le bon jugement de la tres sainte et gracieuse Vierge Marie〉이라는 제목의 교훈극이 파리의 시청 홀에서 민중들을 대상으로 무료 공연되었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그 작품에서는 성모께서 직접 명판결 bon jugement을 내리고 있던 말이야.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도 뽀뜨르 대제 이전 시대의 모스끄바에서, 특히 구약성서에서 따온 거의 〈드라마틱한 연극〉 작품들이 때때로 공연되었어. 그렇지만 드라마 공연들 말고도 당시에는 많은 소설들과 〈시 작품들〉이 세상에 나돌고 있었고, 반드시 성인들, 천사들 그리고 천상의 온갖 천사장들을 등장시켰지. 우리 나라 수도원에서는 아직 따따르 침략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서사시들의 번역, 필사, 게다가 창작에까지 몰두하고 있었어. 예를 들면 수도원에서 만들어진 서사시(물론 그리스어를 번역한 작품이지만) 『성모의 지옥 방문』이란 작품은 그 장면들과 대담성의 측면에서 결코 단테에 뒤지지 않아. 거기에서는 성모께서 지옥을 방문하고 계신데, 대천사 미하일이 그분을 〈고난의 길〉을 따라 인도하고 계시지. 성모께서는 죄인들과 그들이 겪는 고난을 목격하시는 거야.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시선을 끄는 것은 불바다 속에 떨어진 죄인들의 모습이었어. 그들 가운데는 그 불바다 속에 너무 깊이 빠져서 더 이상 불바다 위로 헤치고 나올 수 없는 죄인들, 다시 말해 〈하느님께서도 이미 잊어버린 자들〉이 있었어. 이건 정말이지 굉장한 심오함과 힘의 표현이지. 그래서 큰 충격을 받아 슬픔에 잠긴 성모께서는 하느님의 옥좌 앞에 엎드려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자신이 지옥에서 목격한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런 차별을 두지 말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게 되었어. 성모와 하느님 사이의 대화는 무진장 흥미진진하지. 성모께서 자리를 뜨지 않고 계속 간청을 드리자, 하느님께서는 두 손 두 발에 못이 박힌 아들 예수를 가리키며 〈내 아들의 박해자들을 어찌 용서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어. 그러자 성모께서는 모든 성인들, 모든 순교자들, 천사들, 대천사들에게 함께 엎드려 모든 죄인들에게 아무런 차별 없이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청하자고 부탁했지. 결국 성모께서는 하느님으로부터 매년 성(聖) 금요일부터 성령 강림제까지 모든 고난을 중지한다는 기원을 이루어 내었고, 지옥의 죄인들은 하늘을 향해 〈주여, 당신의 심판은 옳았나이다!〉라고 외치며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었어. 그런데 내 서사시[67]가 당시에 만들어졌더라면 아마 비슷한 식이 되었겠지. 내 서사시의 무대에도 그[68]가 등장하니까. 사실 그는 내 서사시 속에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나타나서 돌아다니고 있을 뿐이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왕국이 도래하리라고 약속하신 이래, 그분의 예언자가 〈자, 내가 속히 임하리니〉라고 기록한 이래 이미 15세기가 지났을 때거든. 〈그날과 그 시간은 아들조차도 모르시며 오직 하늘에 계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만 알고 계시니라〉[69]라는 말씀은 그가 지상에 머무시는 동안에 직접 밝히신 거야. 그러나 인류는

여전히 지난날의 믿음과 지난날의 감동을 가슴에 간직한 채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려 왔어.
오, 오히려 더욱 커다란 믿음을 지니게 되었는데, 그것은 인간에게 하늘나라의 보증이 단절된
지 이미 15세기가 지나 버렸기 때문이야.

마음이 속삭이는 대로 믿을지라
하늘나라의 보증이 없을지라도.[70]

이처럼 마음의 속삭임에 대한 믿음뿐이지! 사실 당시에는 많은 기적도 일어났었어. 치유의
기적을 일으킨 성인들도 존재했었고. 많은 독실한 신자들의 생애 기록에 따르면 하늘나라의
성모께서 그들에게 모습을 나타내셨다는 거야. 그러나 악마라고 낮잠만 자고 있지는 않으므로
인류에게는 그런 기적의 진실성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그때 마침 북부
게르마니아에 무서운 신흥 이교(異敎)가 등장했어. <불붙은 산과 같은> 거대한 별 하나가(즉
교회) <수원(水源)에 떨어져 물 맛이 쓰게 되었다>[71]라는 내용이지. 그들은 기적을
부정하며 하느님을 모독하기 시작했어. 그러나 나머지 신도들은 더욱 열렬히 신심을
불태웠지. 인류의 눈물은 예전처럼 그리스도를 향해 솟구쳤고, 그분을 기다리고 사랑하며
그분에게 희망을 걸었고, 예전과 같이 그분을 위해 고통을 겪으며 죽어 가기를 갈망한
거야……. 이렇듯 인류는 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했지. <주여, 저희들에게
모습을 나타내소서>라고 여러 세기에 걸쳐 그리스도를 찾았으므로 변함없는 연민의 정을 품고
계시던 그분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내려가고 싶으셨어. 『성자전』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그분께서는 예전에도 지상으로 내려와 많은 독실한 신도들, 순교자들, 성스러운 은자들을
찾아가셨던 일이 있지. 우리 나라에서는 쥘체프가 자기 생각의 진실성을 마음 깊이 확신하며
이렇게 단언했지.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지신 그분께서는
하늘나라의 임금께서는 노예의 신분으로
고향 대지여, 그대의 구석구석을
축복하시며 누비셨노라.[72]

틀림없이 그랬을 거라고 나도 네게 말할 수 있어. 그분께서는 일순간이나마 민중들에게,
더러운 죄악으로 고통받고 괴로워하면서도 어린애처럼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민중들에게
모습을 나타내고 싶어하셨던 거야. 내 서사시는 스페인의 세비야에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매일 장작더미가 불타오르던 무서운 종교 재판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

장엄하게 활활 타오르는 화형장에서
사악한 이단자들을 불태웠도다.[73]

오, 그건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동방에서 서방으로 비치는 번갯불처럼>[74]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 돌연히 일어날 종말의 시간에 등장하시는 그런 강림은 물론 아니야. 아니,
그분은 잠시나마 자신의 자식들을, 다시 말해서 이단자들을 불태우는 장작 소리 요란한 바로
그곳에 찾아가고 싶으셨던 거야. 그래서 하해 같은 자비심으로 15세기 전에 인간들 사이를
3년간 편력하실 때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다시 한번 인간들 사이를 돌아다니시는

거지. 그분께서는 남부 도시의 〈무더운 광장〉에 내려오시는데 그때는 마침 국왕, 신하, 기사, 추기경, 매력적인 궁녀들 그리고 세비야의 모든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ad majorem gloriam Dei〉 추기경인 대심문관이 거의 백여 명이 넘는 이단자들을 화형시킨 바로 다음날이지. 그분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조용히 모습을 나타내시지만 이상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분을 알아보게 되지. 바로 여기가 내 서사시의 가장 뛰어난 대목 중의 하나라 할 수 있어. 다시 말해서 어떻게 그분을 알아보느냐가 문제겠지. 민중들은 억누를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그분에게 달려가 그분을 둘러싸고, 그 수효는 점점 불어나면서 그분의 뒤를 따르는 거야. 그분은 끝없는 연민의 고요한 미소를 머금은 채 아무 말 없이 민중들 사이를 걸어가시지. 그분의 가슴속에는 사랑의 태양이 타오르고, 광명과 교화와 권능의 빛이 두 눈에서 흘러나와 사람들의 마음으로 들어가 화답받는 사랑으로 몸을 떨게 하시지. 그분은 손을 뻗어 그들을 축복하시는데 그분의 몸에, 아니 옷자락에 손길이 닿기만 해도 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군중들 속에서 어려서 장님이 된 한 노인이 〈주여, 저를 치료해 주시면 저도 당신을 뵈올 수 있겠나이다〉라고 외치자, 마치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간 듯 장님은 그분을 보게 되는 거야. 민중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분이 지나가시는 땅에 입을 맞추고, 아이들은 그분 앞에 꽃을 뿌리고 찬송가를 부르며 〈호산나!〉를 외쳐 대지. 〈그분이셔, 바로 그분이셔, 그분이 틀림없다고, 어떤 사람도 그분과 같을 수는 없는 거야〉라고 사람들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합창하지. 그분께서 세비야 성당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실 때 뚜껑이 열린 어린아이의 하얀 관이 통곡소리와 함께 성당 안으로 옮겨지는 거야. 관 속에는 한 이름 있는 시민의 일곱 살 난 외동딸이 들어 있어. 죽은 아이는 꽃 속에 파묻혀 있는 거야. 〈저분께서 당신의 아이를 소생시키실 거예요〉라고 군중들은 슬픔에 잠긴 아이 어머니에게 외쳐 대지. 관을 맞으러 밖으로 나온 성당 신부는 못 믿겠다는 듯 쳐다보면서 미간을 찌푸리는 거야. 그러나 죽은 아이의 어머니는 통곡하기 시작하지. 그녀는 그의 발 밑에 엎드려, 〈만일 당신이 그분이시라면 제 아이를 부활시켜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으며 그분을 향해 두 팔을 벌리시. 장례 행렬은 멈추고 관은 성당 문 앞에서 계신 그분의 발 밑에 내려지는 거야. 그분은 연민의 눈길로 바라보시며 다시 한번 조용히 입을 열어 〈탈리다 쿨〉, 즉 〈소녀여 일어나라〉[75]라고 말씀하시지. 그러자 소녀는 관에서 일어나 앓더니 무엇에 놀라기라도 한 듯이 눈을 크게 뜨고는 미소를 머금은 채 주변을 둘러보는 거야. 소녀의 손에는 관에 눌릴 때 쥐어졌던 백장미 다발이 그대로 들린 채로. 군중들 사이에는 소요와 비명과 통곡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추기경인 대심문관이 광장을 따라 성당 곁을 지나가지. 키가 크고 아직도 허리가 곧은 거의 아흔 살에 가까운 그 노인은 쇠약한 얼굴에 두 눈은 움푹 패었지만 불꽃 같은 광채가 빛나고 있어. 오, 그는 로마 종교의 적들을 화형시킬 때 군중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입었던 장엄한 추기경 복장이 아니라 낡고 허름한 수도승 복장을 하고 있지. 그 뒤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안색이 어두운 시무승들과 노예들과 〈신성한〉 호위대가 뒤따르지. 그는 군중들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는 저편을 바라보다가 모든 장면을 다 목격하고 말았어. 그의 발 아래 관이 놓이는 것도 보고, 소녀가 되살아나는 것도 보았지. 그러자 그의 안색이 흐려졌어. 그는 하얗게 센 숄 많은 눈썹을 찌푸리고 그의 눈동자에서는 불길한 불꽃이 튀기 시작해. 그는 손가락으로 가리켜 그를 체포하라고 지시하지. 그의 권세는 너무나 막강하고 사람들은 그의 명령에 꼼짝없이 복종하도록 길들여져 있었으므로 군중들은 호위대에게 열린 길을 비켜 주는 거야. 그리하여 무덤 같은 침묵이 엄숙한 가운데 그들은 그의 양손을 붙들고 끌고 가버려. 일순간 군중들은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이듯 늙은 심문관 앞에서 머리를 땅에 조아리고, 심문관은 아무 말 없이

사람들을 축복하며 그 곁을 지나가는 거야. 호위대는 포로를 종교 재판소의 낡은 건물에 있는 비좁고 음침한 아치 형 감옥으로 끌고 가 그 안에 가두어 버리지. 날은 저물어 어둡고 <숨 막힐 듯> 무더운 세비야의 밤이 찾아오고, 대기는 <월계수 향과 레몬 향으로 진동하지>. 그런데 짙은 어둠 사이로 갑자기 감옥 철문이 열리더니 손에 등불을 든 늙은 대심문관이 감옥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거야. 그는 혼자였는데, 그가 들어서자 철문은 곧 굳게 닫히지. 그는 걸음을 멈추더니 문 옆에서 1, 2분 가량 그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야. 마침내 조용히 다가서면서 탁자 위에 등불을 올려놓으며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당신이 그분이오? 당신이?> 그러나 그는 대답이 나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재빨리 이렇게 덧붙여 말하지. <아무 대답도 하지 마시오, 입 다무시오. 당신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소? 난 당신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잘 알고 있거든.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예전에 이야기한 것 이외에 다른 이야기를 덧붙여 설교할 권리가 없단 말이오. 당신은 어쩌서 우릴 방해하러 온 거요? 당신이 우릴 방해하러 왔다는 것은 당신 자신이 잘 알고 있겠쇼. 하지만 당신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거나 하오? 난 당신이 누군지 모르오, 알고 싶지도 않고. 당신이 그분이든 그분으로 위장한 자든, 난 내일 형을 선고해서 가장 사악한 이교도로서 당신을 화형에 처할 테니. 오늘 당신 발에 입을 맞춘 사람들은 내 손짓 하나에 따라 화형대에 장작을 집어 던질 거요. 당신은 그런 사실을 알고 있소? 그래, 아마도 당신은 그걸 잘 알고 있을 거요.> 그는 잠시도 자신의 포로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골똘히 생각에 잠기는 거야.」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반 형. 그게 대체 무슨 소리에요?」 시종일관 묵묵히 듣고 있던 알료샤가 미소를 지었다. 「그저 한번 해보는 공상이든가, 아니면 노인의 실수, 도대체 있을 수 없는 혼란qui pro quo이겠쇼?」

「그럼 후자의 경우라고 해두지.」 이반은 웃음을 터뜨렸다. 「만일 오늘날의 사실주의에 네가 희롱당한 결과 환상적인 것은 조금도 참을 수 없어서 혼란이라고 생각하고 싶다면 그렇다고 해도 괜찮아. 그건 사실이니까.」 이반은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노인은 아흔 살이나 먹어서 오래 전부터 자신의 이념 때문에 정신 이상을 일으켰을 수도 있을 테니까. 포로는 그의 용모만으로도 노인에게 충격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그건 죽음을 앞둔 데다가 전날 수백 명의 이교도에게 집행한 화형 때문에 흥분이 채 가시지 않은 아흔 살 먹은 노인의 단순한 잠꼬대, 환영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너나 나한테는 혼란이든 한번 해보는 공상이든, 모두 마찬가지로 아니겠어? 여기서 문제는 노인이 자신의 속마음을 꼭 털어놔야 하고, 그래서 90년 동안 침묵해 온 것을 큰소리로 지껄여 대는 것뿐이니까.」

「그런데도 포로는 입을 다물고 있나요? 그를 쳐다보면서도 잠자코 있나요?」

「어떤 경우라도 그러지 않을 수는 없어.」 이반은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그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것 이외에는 아무 말도 덧붙일 권리가 없다고 노인이 지적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내 생각으로는 바로 여기에 로마 가톨릭 교의 기본적인 특징이 들어 있는 것 같아. <모든 것을 당신 스스로 교황에게 인계했으니, 이제는 모든 것이 교황의 소유이며, 이제는 제발 이곳에 찾아오지도 말며, 적어도 때가 오기 전까지는 방해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이지. 그들은 이런 생각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도 쓰고 있어. 적어도 예수회 사람들은 말이야. 난 그 신학자들이 쓴 책을 읽었지. <당신이 떠난 저 세상의 비밀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우리에게 전할 권리를 갖고 있소?>라고 나의 노인은 그에게 묻고 있고 또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아니, 당신은 그럴 권리가 없대요. 그러니 예전에 이야기한 것 이외에 추가로 설교할 수도 없으며, 당신이 지상에 머무는 동안 그토록 지지했던 자유를 인간들한테서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거요. 당신이 다시금 소리 높여 전하려는 모든 것은 인간들의 신앙의 자유를 위협하게 될 것이요. 왜냐하면 그것은 기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요. 그런데 인간들의 신앙의 자유는 1천 5백 년 전 당시에 당신한테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아니었소? 《너희들을 자유롭게 하고 싶구나》라고 말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 아니었소? 당신은 바로 그 《자유로운》 인간들을 지금 목격한 거요. 노인은 의미심장한 조소를 지으며 이렇게 덧붙였지. <그렇소, 그 사업은 우리들에게 무척 소중한 것이었소. 노인은 그를 뚫어질 듯 응시하며 이야기를 계속하지. <하지만 우리들은 그 사업을 당신의 이름으로 마침내 완수했소. 그 자유 때문에 우리들은 15세기 동안 고통을 겪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확고히, 확고히 완수했단 말이요. 확고히 완수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소? 당신이 나를 온순한 눈길로 바라보는 것은 내게 화를 낼 가치조차 없다는 의미요? 그러나 알아 두시오. 오늘날 인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신심이 깊고, 자유로 충만되어 있으며,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자유를 우리한테 가져와서 우리 발 밑에 공손히 바쳤다는 것을. 그러나 그걸 이룬 건 우리들이요. 당신이 기대했던 것은 그런 자유가 아니었소?>라고 말이야.》

「다시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알료샤가 반문했다. 「그 사람은 비꼬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비웃고 있는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 마침내 사람들이 자유를 억제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 공적을 심문관은 자신과 자신의 동료들에게 돌리려는 것이지. <왜냐하면 이제서야(물론 그는 심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처음으로 인류의 행복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요. 인간은 반역자로 창조되었소. 과연 반역자들이 행복해질 수 있겠소? 당신은 경고를 받아 온 것이요>라고 그는 그에게 말하지. <당신은 경고와 지적을 충분히 받았지만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거절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들에게 자신의 사업을 건네주었소. 당신은 약속을 했고 당신의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었으며, 우리들에게 속박과 해방의 권리를 부여했소. 그러니 이제는 그 권리를 우리들로부터 빼앗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요. 당신은 어쩌서 우리들을 방해하려 나타난 거요?>」

「<경고와 지적을 충분히 받았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알료샤가 물었다.

「바로 거기에 심문관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들어 있는 거란다.

<무섭고 지혜가 넘치는 악마가, 자멸과 허무의 악마가……> 하고 심문관은 이야기를 계속하지. <……위대한 악마가 광야에서 당신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고, 악마가 당신을 시험에 들게 했다>는 사실이 성서를 통해 우리들에게 전해졌지요. 그렇지 않소? 그렇다면 악마가 당신한테 던졌던 세 가지 질문, 당신이 거절했던 말, 성서에서 소위 <시험>이라고 한 그 말보다 더 진실된 말을 할 수 있었겠소? 만일 언젠가 지상에 진정으로 청천벽력 같은 기적이 일어났다면, 그날은, 바로 그날은 세 가지 시험의 날이겠지요. 다시 말해서 바로 그 세 가지 질문에 기적이 들어 있는 것이요. 그저 실험적인 한 예에 불과하지만 만일 무서운 악마의 세 가지 질문이 성서 속에서 자취도 없이 사라져 그것들을 복구해야 한다면, 즉 성서 속에 다시 집어넣기 위해 새로 머리를 짜내고 창작해 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정치가, 성직자, 학자, 철학자, 시인 등 지상의 모든 현인들을 불러 모아서, <머리를 짜내어 세 가지 질문을 창작해야 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시오. 물론 거기에는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질문들이어야만 하고 미래의 세계사와 전 인류사를 망라해서 표현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언어로 된 꼭 세 마디, 세 문장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소. 당신은 그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아무리 지상의 지혜를 모으더라도 그 힘과 깊이에서 당시 강하고 지혜로운

악마가 광야에서 당신한테 던졌던 그 세 가지 질문에 근접할 수 있는 또 다른 질문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그 질문들만 미루어 봐도, 그 질문들의 기적적인 출현으로만 미루어 봐도 당대의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영원하고 절대적인 지혜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요. 왜냐하면 그 세 가지 질문에는 인류의 모든 미래 역사가 단 하나의 전체 속으로 응축되고 예언되어 있는 듯하며, 인간의 본성이 지상에서 갖게 되는 온갖 역사적 모순이 한데 합쳐진 세 가지 유형들이 나타나 있기 때문이오. 미래를 알 수 없었을 테니 당시에는 그걸 미처 몰랐을 것이오. 하지만 15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는 그 세 가지 질문 속에 들어 있는 모든 것이 더 이상 아무것도 가감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점쳐졌고 예언되었으며, 또한 실현되었음을 잘 알고 있다오.

누가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시오. 당신이오, 아니면 그때 당신을 시험에 들게 한 그자요? 첫번째 질문을 상기해 보시오, 표현이야 똑같지 않겠지만 의미는 이런 것일 테니까. <너는 세상에 나가고 싶어하는구나. 자유에 대한 약속만 있을 뿐 빈손으로 말이다. 하지만 순진하고 본래 비천한 인간들은 그 약속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여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뿐이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나 인간 사회에서 자유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결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네 눈에도 뜨겁게 달아오른 이 별거숭이 광야에서 뒹구는 저 돌들이 보이겠지? 그 돌들을 빵으로 변화시키란 말이다. 그러면 인류는 네가 손을 거둬들여 빵을 주지 않으면 어쩌나 하고 영원히 불안에 떨면서 착하고 온순한 양떼처럼 네 뒤를 따를 테니.> 하지만 당신은 인간들로부터 자유를 빼앗고 싶지 않았기에, 빵으로 복종을 산다면 그게 무슨 자유인가라고 판단하여 그 제안을 거절했소. 당신은 인간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고 대답했지만, 그 지상의 빵의 이름으로 지상의 악마는 당신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나 당신과 투쟁하여 결국 당신을 누르고 말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그 짐승을 닮은 자야말로 하늘에서 불을 훔쳐다가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었다!>고 외치면서 악마의 뒤를 따르리란 사실을 당신은 모른단 말이오? 세기가 지난 뒤 인류는 자신들의 지혜와 과학으로 인해 범죄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죄악도 존재하지 않고 다만 굶주린 자들만이 존재할 뿐이라고 자신의 입으로 소리 높여 공언하리란 사실을 당신은 모른단 말이오? 사람들은 <먹여 살려라, 그리고 나서 선행을 요구하라!>고 쓴 깃발을 당신을 향해 높이 치켜들고 당시의 성전을 파괴할 것이오. 당신의 성전이 있는 자리에는 비록 예전처럼 완성되지는 못하겠지만 새로운 건물이, 무서운 바벨탑이 새로 들어설 것이오. 하지만 당신은 새로운 탑이 들어서는 것을 막고, 인류의 고통을 천 년은 줄여 줄 수 있었을 거요. 왜냐하면 인류는 자신들의 탑을 세우느라 천 년 동안 고생한 끝에 우리들한테 도달하게 될 것이니까! 그때 인류는 지하에, 카타콤[76]에 숨어 있는(왜냐하면 우리들은 다시 박해를 받고 고통을 겪을 테니까) 우리들을 찾아 나서고, 마침내 우리들을 발견하여 <우리들에게 빵을 주십시오, 하늘나라에서 불을 훔쳐 주겠다고 약속했던 자들은 우리들에게 불을 가져다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라고 외칠 것이오. 빵을 주는 자만이 그 탑을 완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제서야 우리들이 그것을 완성시킬 것이오. 그때 우리들은 당신의 이름으로 빵을 나눠 주겠지만 당신의 이름이라는 것은 거짓말에 불과하오. 오오, 우리들이 없으면 그들은 결코, 결코 빵을 얻을 수 없는 것이오! 그들이 자유를 누리는 한 어떤 과학도 빵을 줄 수 없지만, 결국 그들은 우리들의 발 아래 자유를 반납하면서, <우리들을 노예로 삼되 우리들에게 빵을 주시는 편이 낫습니다>라고 말할 것이오. 마침내 그들 스스로 지상의 빵과 자유가 양립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오. 왜냐하면 그들은 두 가지를 절대로, 절대로 모두 가질 수는 없을 테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무력하고 결함투성이의 하잘것없는 존재이자 반역자들이어서 절대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요. 당신은 그들에게 천상의 빵을 약속했지만, 다시 말해 두지만 영원히 모순 속에서 허덕이며 영원히 비천한 존재인, 무력한 그들의 눈에 그것이 지상의 빵과 비교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오?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천상의 빵의 이름으로 당신을 따르다 해도 천상의 빵 때문에 지상의 빵을 경시할 능력이 없는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남게 될 것이 아니오? 당신한테는 위대하고 능력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만이 소중할지 모르지만, 수백만, 아니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없이 많은 사람들, 연약하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위대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재료가 되어야만 하겠소? 아니오, 우리들한테는 그 힘없는 사람들도 소중한 것이요. 그들은 결함투성이의 반역자들이지만 결국 복종하게 될 거요. 그들은 우리들에 대해서 경탄해 마지않을 것이며, 우리들을 신으로 여기게 될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앞장서서 자유를 참아 내고 그들을 통치하는 데 동의했기 때문이요. 궁극적으로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 끔찍한 일이 아니겠소! 그러나 우리들은 당신한테 복종하며 당신의 이름으로 통치하는 거라고 말할 것이요. 우리들은 다시 그들에게 거짓말을 할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은 결코 당신을 용납하지 않을 테니. 따라서 반드시 거짓말을 해야만 하므로 그 거짓말 속에 우리들의 괴로움이 깃들어 있는 것이요. 바로 이것이 광야에서의 첫번째 질문이 의미하는 바이며, 당신은 스스로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긴 자유의 이름으로 그것을 거부했던 것이요. 그렇지만 그 질문 속에는 이 세상의 위대한 비밀이 담겨 있소. 당신이 <지상의 빵>을 받아들였다면 개별적인 인간은 물론 전인류의 영원하고 공통된 고뇌에, <과연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해답을 주었을 것이요. 자유를 누리는 인간에게 경배할 대상을 서둘러 찾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답답한 고민거리는 없는 것이요. 하지만 인간은 경배할 대상을 찾고 있고, 인류가 그 대상 앞에 순식간에 무릎을 꿇으리란 사실은 너무나, 너무나 자명한 일이요. 왜냐하면 그 가엾은 피조물들의 고민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경배할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믿고 경배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야 한다는 데 있기 때문이요. 바로 이 경배의 <공통성>에 대한 욕구는 천지 창조 이래로 전인류는 물론 개개인의 가장 힘겨운 고통이 되어 왔소. 공통된 경배 때문에 그들은 칼을 휘두르며 서로 싸웠던 것이요. 그들은 신들을 창조하여 <너희의 신들을 버리고 우리의 신들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과 너희의 신들에게 죽음이 있을 뿐이다!>라며 서로를 끌어들었던 말이요. 그런 상황은 세상의 종말까지, 이 세상에서 신들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요. 설혹 우상들 앞에 몸을 굽힌다 해도 마찬가지로 아니겠소. 당신은 인간 본성의 근본적인 비밀을 알고 있었고, 모든 사람을 무조건 당신 앞에 경배토록 만들기 위해 당신에게 제시된 유일하고 절대적인 깃발을, 지상의 빵의 깃발을 자유와 천상의 빵이라는 미명하에 거부하고 말았소. 그리고 나서 당신은 끊임없이 무슨 짓을 저질러 왔는지 잘 살펴보시오. 모든 것에 자유의 이름을 내걸었던 것이요! 당신한테 말해 두지만, 인간이라는 불행한 존재들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지녔던 자유라는 선물을 한시 바빠 넘겨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런 고민은 없는 것이요. 그러나 사람들의 자유를 지배할 수 있는 자는 오직 그들의 양심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뿐이요. 당신에게는 빵과 더불어 확실한 깃발이 주어졌으므로 빵을 나눠 준다면,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을 것이고, 따라서 인간은 무릎을 꿇을 것이요. 그러나 그때 당신 곁에서 누군가가 인간의 양심을 지배한다면, 인간은 당신의 빵을 버리고 자신의 양심을 유혹하는 자를 따를 것이요. 그 점에서는 당신이 옳았소. 왜냐하면 인간 존재의 비밀은 그저 살아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에 있기 때문이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는 확고한 관념이 없다면, 인간은 비록 자기 주변에 빵이 널려 있어도 살기를 원치 않고 지상에

남기보다는 차라리 자살을 택할 것이요. 문제는 그렇지만, 사실 어떤 일이 벌어졌소? 인간의 자유를 지배하기는커녕 당신은 인간에게 한층 더 많은 자유를 주고 말았소! 선악을 분별할 때의 자유로운 선택보다는 평안,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이 인간에게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당신은 잊었던 말이요? 인간에게 양심의 자유보다 더 매혹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도 없는 것이요. 그런데 당신은 인간의 양심을 영원히 평안하게 할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 주지는 않고 특별하고 수수께끼 같고 불확정적인 것만을 가져왔고 인간에게 힘겨운 것만을 건네주었으니, 결국 인간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 꼴이 되었소. 그가 누구요? 바로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러 왔다던 사람 아니요! 당신은 인간의 자유를 지배하기는커녕 그 자유를 배가시켜 인간의 정신적 왕국에 영원히 고통을 안겨 주지 않았소. 당신은 당신에게 현혹되어 포로가 된 인간이 자유 의지로 당신을 따르는 자유로운 사랑을 기대했던 거요. 인간은 강력한 고대 율법 대신에 당신의 형상만을 지도자로 삼은 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만일 인간이 선택의 자유 같은 무서운 짐에 의해 짓눌린다면, 결국 그들은 당신의 형상과 진실을 거부하고 논쟁에 빠져 들 것이라 생각해 보지는 않았소? 결국 그들은 진리란 당신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외칠 것이요. 왜냐하면 엄청난 근심거리와 해결할 수 없는 과제를 안겨 주면서 당신이 저질렀던 것 보다 더는 그들을 혼란과 고통에 빠뜨릴 수는 없기 때문이요. 것처럼 당신은 자신의 왕국을 파괴시킬 토대를 스스로 마련한 것이니, 그 문제에 관한 한 누구도 탓할 수 없는 것이요. 당신한테 제안했던 것이 그것이란 말이요? 무기력한 반란자들의 행복을 위해서 세 가지 힘이, 그들의 양심을 영원히 지배하고 사로잡을 강력한 세 가지 힘이 지상에는 존재하오. 그 힘은 다름 아닌 기적과 신비와 교권이요. 당신은 첫번째 것도, 두 번째 것도 그리고 세 번째 것도 거부했으며 스스로 그 모범이 되었소. 무섭고 지혜로운 악마가 당신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 놓고 이렇게 말했지요. <네가 하느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알기를 원한다면 밑으로 뛰어내려라. 성서에 천사들이 그리스도를 받쳐 주어 땅에 떨어져도 다치지 않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말이다. 그러면 내가 하느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이며, 네 아버지에 대한 너의 믿음이 어떠한지도 입증되지 않겠느냐.>[77]

그러나 당신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 제안을 거절했으며 굴복하지도 않고 또 뛰어내리지도 않았소. 오, 물론 당신은 그때 신처럼 당당하고 훌륭하게 행동했지만 사람들은, 무능한 반란의 족속들은, 신이 아니지 않소? 오, 그때 한 걸음만 앞으로 내디뎠더라도, 밑으로 몸을 던지기 위해 움직이기만 했더라도 당신은 곧바로 하느님을 시험한 것이 되어 그분에 대한 모든 믿음을 잃고 당신이 구원하러 온 그 대지와 충돌하여 당신을 시험하던 지혜로운 악마를 기쁘게 했으리란 걸 알고 있었소. 하지만 되풀이해서 말하건대 당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소? 당신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시험을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단 1분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정말 있소? 인간의 본성이 기적을 거부하고 그 무서운 생사의 갈림길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고통스러운 정신적 의혹의 순간에 자유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창조되었을 것 같소? 오, 당신은 자신의 행적이 성서에 기록되어 땅 끝까지 영원히 전해지리란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인간이 당신의 뒤를 따라 기적을 물리치고 하느님과 함께하기를 기대했던 것이요. 그러나 당신은 인간이 기적을 거부하자마자 곧 하느님도 거부할 거란 사실을 몰랐던 거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느님보다는 기적을 찾고 있기 때문이요. 그래서 인간은 기적이 없는 한 무력한 존재이므로 수없이 반역자, 이교도, 무신론자가 되면서까지도 자신들만의 새로운 기적을 창조해 내고, 또 심지어는 마법적인 기적, 황당무계한 기적에 매료되는 것이요. 당신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겠다>고 소리 지르며 조롱하고 놀려 대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소. 당신이 거기서 내려오지 않은 것은 인간을 기적의 노예로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며, 기적에 의한 신앙이 아닌 자유로운 신앙을 열망했기 때문이요. 당신은 단번에 인간을 영원히 공포에 떨게 할 권세 앞에서 드러나는 예측적인 노예들의 환희가 아니라, 자유로운 사랑을 열망했던 거요. 그러나 당신은 사람들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말았소. 그들은 비록 반역자로 창조되긴 했어도 노예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요. 잘 생각해 보고 판단하시오. 그때로부터 15세기가 지났으니 당신이 자신의 수준까지 끌어올린 사람들이 과연 누군지,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시오. 맹세하건대 인간은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허약하고 비천하게 창조되어 있는 것이요! 당신이 했던 일을 인간이 해낼 수 있을 것 같소? 당신은 인간을 너무나 존중했기에 인간을 동정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았소. 그건 인간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요. 그건 자신보다 인간을 더 사랑했던 바로 당신의 행위였소! 인간을 덜 존중하고 그에게 더 적은 것을 요구하면 그의 부담이 줄어들 테니, 더욱 사랑으로 다가가는 길이 될 거요. 인간은 허약하고 비열하오. 인간은 지금 도처에서 우리들의 권력에 맞서 반란을 일으키고 있고 반란을 일으킨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지만, 그게 대체 어떻단 말이요? 그건 어린애들의, 코흘리개 학생들의 자부심인 거요. 그건 학급에서 반란을 일으켜 선생을 쫓아내는 어린애들의 자부심일 뿐이요. 그러나 어린애들의 환희도 끝을 맺어 선생은 어린애들한테 소중한 존재가 될 것이요. 사람들은 성전을 파괴하고 대지를 피로 물들일 것이요. 어리석은 어린아이들은 자신들이 반역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자신들의 반역을 참아 내지 못하는 무력한 반역자들이란 사실을 결국 깨닫게 될 것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어리석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들을 반역자로 창조한 자가 틀림없이 자신들을 희롱하고 싶었음을 의식하게 될 것이요. 사람들은 몹시 후회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테지만, 그들이 내뱉은 이야기는 신성 모독이 될 테니, 그들은 더욱 불행해지고 말 것이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신성 모독을 참지 못하고 결국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분풀이를 하기 때문이요. 그러므로 불안과 혼란과 불행은 당신이 그들의 자유를 위해 수난을 겪은 후에 남겨진 현재 인간의 운명이란 말이요! 당신의 위대한 예언자는 환상과 비유를 들어 말할 것이요, 자신은 첫 부활의 모든 증인들을 만났으며, 그들은 종족마다 1만 2천 명에 달한다고. 그러나 그 숫자가 사실이라면,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요.[78] 그들은 당신의 십자가를 짊어졌고 수십 년을 매뚜기와 풀뿌리로 연명하면서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혈벗은 광야에서 견뎌 냈으니, 당연히 당신은 그 자유의 자식들을, 자유로운 사랑의 자식들을,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발적이면서 위대한 희생을 감수한 자식들을 자랑스럽게 가리킬 수 있을 것이요. 하지만 그들이 겨우 수천 명에 불과하다면 결국 그들은 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찌 되오? 강한 인간들처럼 견뎌 낼 수 없었던 나머지 허약한 사람들은 대체 무슨 죄를 지은 것이란 말이요? 것처럼 무서운 재능을 부여받을 수 없었던 허약한 영혼은 대체 무슨 죄를 지은 것이요? 당신은 오로지 선택된 자들을 위해, 선택된 자들만을 찾아온 것은 아니요?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신비이며 우리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소. 하지만 만일 신비가 존재한다면 사람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나 사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신비이며, 설혹 양심에 거리긴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무조건 복종해야 할 것은 신비라고 전도하고 가르치는 것이 정당할 것이요. 우리는 그렇게 실천해 왔소. 우리들은 당신의 위업을 손질해서 <기적>과 <신비>와 <교권>을 반석으로 삼았소. 그러자 사람들은 자신들을 다시 양떼처럼 인도해 주고, 마침내 가슴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안겨 준 그토록 무서운 재능을 가슴속에서 제거시켜 준다면 몹시 기뻐했소. 그렇게 가르치고 행하는 우리들이

옳은 게 아니오? 어디 말해 보시오! 인류의 무능을 너무나 딱하게 여겨서 사랑으로 그들의 짐을 덜어 주고 우리들이 허락하는 한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허약한 본성을 용납하는데도 우리들이 인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소? 당신은 무엇 때문에 우리들을 방해하러 온 것이오? 어째서 당신은 입을 다문 채 그 온순한 눈으로 나를 뚫어질 듯 쳐다보시오? 화를 낼 테면 내보시오. 나는 당신의 사랑을 원치 않으니까. 왜냐하면 나는 당신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오.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숨길 게 뭐가 있겠소? 내가 지금 대화를 나누는 상대가 누군지 모른다고 생각하시오? 내가 당신한테 무슨 말을 하려는지 당신은 이미 잘 알고 있잖소. 당신의 눈동자를 읽고 있단 말이오. 내가 당신한테 우리들의 비밀을 숨길 것 같소? 당신은 아마도 내 입을 통해 그걸 듣고 싶은 모양이니 말해 주겠소. 우리들이 함께하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그>[79]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비밀이지! 우리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당신이 아닌 <그>와 함께했고, 벌써 8세기가 흘렀소. 정확히 8세기 전에 우리들은 당신이 화를 내며 거부했던 그것을, 악마가 지상의 모든 왕국을 가리키며 당신에게 제의했던 그 마지막 재능을 그에게서 얻어 냈소. 우리들은 그에게서 로마와 시저의 칼을 얻어 냈고, 우리들만이 지상의 제왕, 유일한 제왕이라 선언했소. 비록 우리들의 사업을 완수하지는 못했지만 말이오. 하지만 누구 탓이겠소? 오오, 그 사업은 지금까지도 시작 단계에 불과하긴 하지만 이미 착수되어 있소. 사업의 완성은 아직도 오래 기다려야 하며 대지는 많은 수난을 겪게 되겠지만, 우리들은 성취할 것이며 시저가 될 테니, 그때가 되면 인류의 세계적 행복에 대해 생각할 것이오. 그런데 당신은 그때 이미 시저의 칼을 얻을 수도 있었소. 어째서 당신은 그 마지막 선물을 거부했던 거요? 전능한 악마의 세 번째 충고를 받아들였다면 당신은 인간이 지상에서 찾고 있는 모든 것을 실행해 주었을 거요. 즉, 누구를 경배할 것인지, 누구에게 양심을 위임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이 한 몸이 되어 이의 없이 공동 생활을 영위하는 개미처럼 단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말이오. 왜냐하면 전 세계 단결의 욕구는 인류의 마지막이자 제3의 고통이기 때문이오. 인류는 세계적인 안정을 반드시 얻으려고 불철주야 노력해 왔소. 위대한 역사를 지닌 위대한 민족들도 많았지만, 그 민족들은 지위가 높아질수록 더욱 불행해지고 말았소.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민족들보다 더 강하게, 사람들을 결합시켜야 하는 세계화의 욕구를 의식했기 때문이오. 티무르 족이나 칭기즈칸의 무리들처럼 위대한 민족들은 우주를 정복하려고 애쓰면서 침략을 일삼았으며 대지에 회오리바람을 일으켰는데, 그들은 비록 무의식적이긴 해도 전 세계적-전 사회적 통일이라는 바로 그 위대한 인류의 요구를 표현했던 것이오. 온 세상과 시저의 여러 왕국을 얻은 후에 당신은 세계 왕국을 건설하고 세계 평화를 전했어야 했소. 왜냐하면 인류의 양심을 지배하고 그들의 빵을 손에 움켜쥔 자가 아니고는 누구도 그들을 지배할 수 없기 때문이오. 시저의 칼을 얻은 사람은 우리들이며, 우리들은 그 칼을 치켜 든 후, 물론 당신을 거부하고 <악마>를 따랐소. 오오, 자유로운 지혜와 과학과 식인(食人)이 미쳐 날뛰는 세월이 여전히 지속될 것이오. 왜냐하면 인류는 우리들의 힘을 빌리지 않고 바벨탑을 재건하기 시작했으며, 식인으로 끝을 맺을 테니까 말이오. 그러나 그때는 짐승처럼 우리들에게 기어와 우리 발을 핥으면서 피눈물을 흘릴 것이오. 그러면 우리들은 그 짐승을 깔고 앉아 축배를 들 테니, 그 잔에는 <신비!>라고 적혀 있을 것이오. 그러나 오직 그때에만 사람들을 위한 평온과 행복의 왕국이 도래할 것이오. 당신은 선택받은 자들로 인해서 자부심을 느낄 테지만, 당신이 가진 것이라곤 선택받은 자들뿐이잖소. 하지만 우리들은 만인을 평화롭게 할 것이오. 그뿐이 아니오. 그 선택받은 자들, 선택받을 수 있었던 강한 자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당신을 고대하다가 지쳐서 정신의 힘과 마음의

정열을 엉뚱한 곳에 써버렸거나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결국 당신에게 대항해 <자유의> 깃발을 치켜들게 될 것이오. 그러나 당신 자신도 그 깃발을 치켜든 적이 있지 않소. 우리들의 왕국에서 그들은 모두 행복을 누릴 것이며, 당신의 자유를 누릴 때와는 달리 더 이상 반란을 꾀하지도 서로를 해치지도 않을 것이오. 오오, 우리들은 그들이 우리들을 위해 자유를 포기하고 복종할 때에만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설득할 것이오. 자, 우리가 옳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될까요? 그들 자신은 우리들이 옳다고 믿을 것이오. 왜냐하면 당신의 자유가 얼마나 끔찍한 노예의 공포와 혼란으로 자신들을 이끌었는지 기억하게 될 테니까. 자유나 자유로운 지혜나 과학 따위는 그들을 무서운 숲으로 끌고 가서 그런 기적과 풀리지 않는 신비 앞에 서게 할 테니, 그들 중 복종할 줄 모르는 흥폭한 자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이고, 복종할 줄 모르나 힘없는 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해칠 것이고, 힘없고 불쌍한 자들은 우리 발 밑으로 기어와, <네, 당신들이 옳았습니다. 당신들만이 그의 신비를 지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들께 돌아왔으니 저희들을 저희 자신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외칠 것이오. 결국 우리들한테서 빵을 받아 든 그들은 우리들이 돌맹이를 빵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손으로 벌어들인 빵을 거두었다가 다시 나눠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지만, 그들의 기쁨은 빵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빵을 우리들로부터 받고 있다는 사실에 있소. 왜냐하면 우리들이 없던 시절에 그들이 제 손으로 벌어들인 빵이 저희들 손 안에서 돌맹이로 변했지만, 우리들한테 돌아온 다음부터는 바로 그 돌맹이가, 저희들 손 안에서 빵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잘 알 것이기 때문이오. 영원히 복종한다는 것이 뜻하는 바를 그들은 매우, 매우 높이 평가할 것이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불행해질 것이오. 그러나 그런 몰이해를 부추긴 사람이 누군지, 어디 말해 보시오. 양떼를 흠어 놓고 낫선 길로 몰아낸 사람이 대체 누구요? 그러나 양떼들은 다시 한자리에 모여서 영원히 복종하게 될 것이오. 그러면 우리들은 그들이 조용하고 겸손한 행복을, 그들이 창조된 바대로 힘없는 존재의 행복을 누리게 해줄 것이오. 오, 우리들은 결국 그들이 자부심을 갖지 못하도록 설득할 것이오.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을 부추겨 자부심을 갖도록 가르쳤기 때문이오. 우리들은 그들이 무력하고 가엾은 어린애에 지나지 않으며, 어린애의 행복이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달콤하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일 것이오. 그러면 그들은 겁을 집어먹고서 동지의 어미 새에게로 달려가는 새끼 새들처럼 공포에 떨며 우리들을 우러러보면서 우리들에게 매달릴 것이오. 그들은 깜짝 놀라 우리들을 두려워할 것이며, 우리들이 수억 마리의 난폭한 양떼들을 진정시킬 수 있을 만큼 강하고 지혜롭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할 것이오. 그들은 우리들이 별걱 화라도 내면 전전긍긍 두려운 생각에 가슴 조이며 어린애들이나 여자들처럼 눈물을 펄펄 쏟겠지만, 우리들이 손만 까딱하면 곧 즐거움과 웃음으로, 밝은 기쁨으로, 그리고 행복한 어린애의 노래로 옮겨갈 것이오. 그렇소, 우리들은 그들이 일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들겠지만, 노동 시간을 쪼개어 어린애들의 노래나 합창이나 순진한 춤 따위의 유희를 즐길 자유 시간을 줄 것이오. 오, 우리들은 그들의 죄악도 허용할 것이며, 그러면 허약하고 무력한 그들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며 마치 어린애들처럼 우리들을 좋아할 것이오. 그때 우리들은 우리의 허락을 받는 한 어떤 죄도 용서될 수 있다고 말하겠소. 우리들이 그들의 죄를 용납하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며, 그들의 죄에 대한 벌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떠맡게 될 것이라고 말하겠소. 우리가 그 책임을 떠맡으면 그들은 하느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대신 짊어진 은인이라며 우리들을 숭배할 것이오. 그리고는 우리들한테 어떤 비밀도 갖지 않을 것이오. 우리들은 복종 정도에 따라 아내와 정부를 거느리고 사는 문제나, 자식들을 가지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허용도 하고

금지도 할 것이요. 그러면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우리들한테 복종할 것이요. 양심은 그들의 가장 고통스런 비밀이어서 우리들한테 모두, 모두 위임할 테니 우리들은 모든 것을 허용할 것이고, 그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들의 결정에 신뢰를 보낼 것이요. 왜냐하면 그들은 개인의 자유 의사 결정이라는 그들의 큰 두통거리나 현재 당면한 무서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이요. 그러면 그들을 통치하는 수십만 명을 제외하고 남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질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들,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들만이 불행해질 것이기 때문이요. 수백만의 갓난애들과 선악 판단이라는 저주를 받은 수십만의 수난자들이 등장하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조용히 죽어 갈 것이며 그것도 당신의 이름으로 사라져 갈 것이고, 무덤 저편에서 죽음만을 발견하게 될 것이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보상을 명분으로 그들에게 손짓할 것이요. 왜냐하면 저 세상에 그런 것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들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닐 테니 말이요. 소문이나 예언에 따르면 당신은 다시 이 세상에 온다고, 그것도 선택받은 자들과 당당하고 강한 자들과 함께 온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렇게 말하겠소. 그들은 자기 자신들만을 구원했을 뿐이지만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했노라고. 짐승의 등에 올라타 손에는 <비밀>을 움켜쥐고 있는 탕녀는 모욕을 당할 것이며 힘없는 사람들은 다시 반란을 일으켜 그녀의 자홍빛 비포를 갈기갈기 찢고 그 <더러운> 몸뚱이를 벌거벗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소.[80] 그렇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당신에게 죄를 모른 채 행복에 젖어 있는 수억 명의 갓난애들을 가리키겠소. 그들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 죄를 떠맡은 우리들은 당신 앞에서, <우리들을 심판하라, 그것이 가능하며 또 그럴 능력이 있다면> 하고 말할 것이요. 명심하시오, 난 당신이 두렵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시오, 나도 광야에 있어 봤고, 메뚜기와 풀뿌리로 연명해 봤으며, 당신이 인류에게 축복을 내렸던 그 자유에 나도 축복을 내렸다는 사실을. 그리고 나도 <수를 채우려는> 열망을 갖고서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 속에,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 속에 포함되고 싶은 열망 때문에 애썼던 적이 있소. 그러나 나는 꿈에서 깨어났기에 그런 미친 짓에 봉사하고 싶은 생각이 사라졌소. 나는 <당신의 행적을 수정했던> 겸손한 사람들에게 되돌아왔던 거요. 나는 거만한 자들과 결별하고 겸손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겸손한 사람들에게 돌아온 것이요. 이제 내가 당신한테 한 이야기는 그대로 실현될 것이며 우리들의 왕국은 건설될 것이요. 다시 말해 두지만, 내일이면 당신은 순종하는 양떼들을 보게 될 것이며, 그들은 내 손짓 하나로 당신이 우리들을 방해하러 온 것을 이유로 당신을 불태울 화형대 속에 불타는 장작을 던져 넣을 것이요. 우리들의 화형대를 써먹을 데가 있다면 그건 누구보다도 당신한테일 것이요. 나는 내일 당신을 화형에 처하겠소. 이것으로 할 말은 다 했소Dixi.»

이반은 말을 멈추었다. 그는 흥분을 가누지 못한 채 정신없이 이야기를 늘어놓았으나 이야기를 마치자 갑자기 싱긋 미소를 지었다.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알료샤는 끝 무렵에 몹시 흥분하여 여러 차례 형의 이야기를 제지시키고 싶었지만 분명히 꼭 참고 있다가 마치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는 것처럼 갑자기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그건 난센스예요!」 그는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형의 서사시는 예수님에 대한 찬사이지, 형이 원한 것처럼…… 비난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형이 말한 자유를 믿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자유를 그렇게, 그렇게 이해해야 하다뇨! 그것이 정교에서의 해석일까요……? 그건 로마의 해석, 그것도 로마 전체의 해석이 아닌 단지 거짓말에 불과하며, 가톨릭 교도들의, 심문관들의, 예수회 중에서도 가장 나쁜 자들의 해석이에요!

게다가 형이 말하는 심문관 같은 그런 환상적인 인물은 절대 존재할 수 없어요. 자신이 떠맡았다는 사람들의 죄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어떤 저주를 떠맡았다는,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이란 누구니까? 그들이 대체 언제 등장했던가요? 우리들은, 예수회를 알고 있고 사람들은 그들에 관해 험담을 늘어놓고 있지만, 그래도 형이 생각하는 대로일까요? 그들은 절대로,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로마 교황을 황제로 삼는 미래의 세계적 지상 왕국의 로마 군대에 지나지 않아요……. 그것이 그들의 이상이지만 그 속에는 아무런 신비도, 고상한 비애도 없어요……. 그것은 단순히 권력, 지상의 추악한 행복, 노예제에 대한 희망만 있을 따름이며…… 그들이 지주가 되는 미래의 농노제와도 같은 것이에요……. 그게 그들의 전부지요. 어쩌면 그들은 신을 믿지 않을지도 몰라요. 수난을 겪는다는 형의 그 심문관은 하나의 환상일 뿐이고요……。」

「그만, 그만 해라.」 이반은 웃고 있었다. 「너무 흥분하지 말고. 환상이라고 해도 좋단다! 물론 당연히 환상이고. 하지만 정말 너는 최근 여러 세기에 걸친 가톨릭 운동이 추악한 행복만을 추구하는 권력의 희망 사항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빠이시 신부가 그렇게 가르친 것이냐?」

「아니, 아니에요. 오히려 빠이시 신부님은 지금 형이 한 이야기와 통하는 데가 있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지만 물론 그런 이야기가,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알료샤는 자기 말을 얼른 삼켜 버렸다.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너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귀중한 증언이란다. 네게 묻겠는데, 예수회 교도들과 심문관들이 어쩌서 더러운 물질적 행복만을 위해 단결했다는 것이지? 어쩌서 그들 가운데에는 위대한 비애로 고뇌하며 인류를 사랑하는 단 한 사람의 수난자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냐? 추악한 물질적 행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만이라도 그런 인물이 존재한다고 상상해 보렴. 비록 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말한 그런 대심문관은 광야에서 풀뿌리로 연명했고 자신의 육체를 극복해 가며 스스로를 자유롭고 완전하게 만드는 데 온 힘을 기울였으나, 한편으로는 한평생 인류를 사랑했던 인물이야. 그는 당시 나머지 수백만의 하느님의 아들이 조롱의 대상이 되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며 그들이 자신의 자유를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 가없는 반역자들 가운데서 탑을 완성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나올 수도 없으며 위대한 이상가가 자신의 조화를 꿈꾸었던 것은 그런 거위 같은 무리들 때문이 아니다라는 확신 속에서, 만약 자유 의지를 완벽히 성취한다고 해도 그 도덕적 만족감이란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문득 깨달은 인물이지. 이런 사실을 깨달은 그는 방향을 선회해서 현명한 사람들 편에…… 가담했던 것이야. 정말 그런 인물이 존재할 수 없을까?」

「누구 편에 가담했다는 것이죠? 현명한 사람들이란 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알료샤는 옆에 들떠 소리쳤다. 「그들에겐 그런 지해도, 그런 신비나 비밀도 없단 말이예요……. 가진 것이 있다면 단지 무신론뿐이며 그것이 그들의 비밀 전부겠지요. 형의 그 심문관은 신을 믿지 않으며 그것이 그자가 지닌 비밀의 전부예요!」

「그렇지도 모르지! 결국 너도 알아차렸구나. 그건 사실이고 바로 거기에 모든 비밀이 들어 있지. 하지만 광야에서의 위업을 위해 자신의 일생을 버렸고 인류에 대한 사랑을 치유하지도 못했던 그런 인간인데도 그것을 정말 수난이라 할 수 없을까? 그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무서운 대악마의 충고만이 허약한 반역자들, 〈조롱받도록 창조된 미완의 시험적 존재들〉이 그런대로 견딜 만한 상태에서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던 거야. 그런 확신 속에서 그는 지혜로운 악마, 죽음과 파멸의 무서운 악마의 지시대로 따라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거짓과 위선을 받아들여야 하고 사람들을 의식적으로 죽음과 파멸로 이끌어야 하며, 그 가없는 장님들을 자신이 어디로 인도되고 있는지 조금도 눈치채게 하지 못한 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길로 거짓 인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그런데 주목할 것은 그 거짓이 심문관이 한평생 열정적으로 이상으로 믿어 왔던 그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거든! 그래도 그것이 불행이 아닐까! <추악한 행복만을 갈망하는 권력>의, 그 군대의 지도자 자리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그런 인물이 나타날 수 있다면 비극을 낳기에는 그 사람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게다가 그의 군대와 예수회 교도들을 거느린 전 로마적 사업의 진정한 지도 이념이, 그 사업에 대한 고상한 이념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될 그 사람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 유일한 인물이 운동의 선두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대가 끊겼던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확신해. 로마 교황들 중에서도 그 유일한 인물들이 나타났었는지도 모르지. 자기 방식대로 철저히 인류를 사랑했던 그 저주받은 심문관이 그 수많은 유일 심문관들 사이에 지금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니라, 비밀을 감추기 위해, 불행하고 허약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그들로부터 비밀을 감추기 위해 이미 오래 전에 조직된 동맹, 비밀 결사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르지. 또 그것은 반드시 존재하며 또 존재해야만 해. 나는 프리메이슨의 근본에도 그와 유사한 비밀이 존재한다고 생각해. 따라서 가톨릭이 프리메이슨을 그토록 증오하는 까닭은, 그들을 양떼도 하나 목자도 하나여야 한다는 이념의 통일을 파괴하는 파괴자, 경쟁자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내 생각을 변론하다 보니 네 비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작자가 되고 말았구나. 이제 그만해 두자.»

「어쩌면 형 자신이 프리메이슨인지도 모르겠군요!」 알료샤가 갑자기 소리 질렀다. 「형은 신을 믿지 않아요.» 그는 이렇게 덧붙였으나 상심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형이 조소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형의 서사시는 어떻게 끝나요?」 그는 땅을 내려다보며 갑자기 물었다. 「아니면 벌써 끝났나요?」

「나는 이런 식으로 끝을 맺고 싶구나. 심문관은 말을 마치고 나서 얼마간 자신의 포로가 대답하기를 기다렸지. 심문관은 그의 침묵이 고통스러워졌어. 그러나 죄수는 그의 눈을 뻘뻘 쳐다보면서 아무런 반박도 하고 싶지 않다는 듯 조용히 열중해서 듣고만 있는 거야. 심문관은 두렵고 듣기 싫은 이야기라도 좋으니 죄수가 무슨 말이든 해주기를 바라지. 그러나 갑자기 그는 아무 말 없이 심문관에게 다가오더니 아흔 살 노인의 핏기 없는 입술에 조용히 입을 맞추는 거야. 이것이 그의 대답의 전부야. 심문관은 소스라쳐 놀라고 말아. 심문관은 입술을 부르르 떨면서 문 쪽으로 다가가 감옥 문을 활짝 연 다음 죄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어서 나가시오.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시오……. 앞으로 절대 찾아와선 안 되오……. 절대, 절대로.> 노인은 그를 <어둠이 깔린 도시의 광장>으로 내보내는 거야. 그래서 포로는 떠나가는 거지…….」

「그럼 그 노인은요?」

「그 입맞춤이 그의 가슴속에서 불타고 있지만 과거의 사상을 고수하겠지.»

「형도 그의 편이죠, 형도?」 알료샤는 슬픈 목소리로 외쳤다. 이반은 싱긋 미소를 지었다.

「이건 모두 헛소리에 불과하단다, 알료샤. 이건 시라곤 단 두 줄도 써본 적이 없는 철부지 학생의 지각 없는 서사시에 지나지 않아. 그런데도 어쩌서 넌 그렇게 심각한 거냐? 넌 내가 지금 당장 그곳에, 예수회 교도들한테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행적에 수정을 가하는 자들과 한패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맙소사,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너한테 말했었잖아, 서른 살까지만 시간을 보내다가 그 후엔 술잔을 마룻바닥에 내던지겠다고!」

「그러면 끈끈한 잎새들이나 소중한 무덤들이나 푸른 하늘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은 어찌 되겠어요! 앞으로 형은 대체 어떻게 살아가며, 또 무엇으로 그들을 사랑하시겠어요?」 알료샤는 슬픈 목소리로 외쳤다. 「가슴과 머릿속에 그런 지옥을 담아 두는 것이 대체 가능하구나 한가요? 아니, 형은 그자들과 합류하려 가실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자살하고 말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테니!」

「무엇이든 견뎌 낼 정도의 힘은 있어!」 이반은 냉소를 흘리며 말했다.

「어떤 힘 말인가요?」

「까라마조프의…… 까라마조프의 저열한 힘 말이야.」

「그것은 방탕에 빠져 부패 속에서 영혼을 질식시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가요?」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것은…… 단지 서른 살까지만 그럴 뿐이고 나중에는 거기에서 빠져나올 거야,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빠져나온다는 거죠? 무엇의 도움으로요? 형이 가진 사상으로는 불가능해요.」

「어쨌든 까라마조프 식이 될 거야.」

「〈모든 것은 허용된다〉, 이런 말인가요? 모든 것은 허용된다니,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이반은 인상을 찌푸리더니 갑자기 이상하리만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니, 너 미우소프가 화를 냈던 어제의 그 표현을 써먹고 있구나……. 드미뜨리 형이 멋도 모르고 뛰어들어 그런 식으로 떠들어 대지 않았니?」 그는 일그러진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럴지도 몰라. 〈모든 것은 허용된다〉는 말이 일단 언급된 이상 부인하지는 않겠어. 그리고 보면 미젠까의 논평도 나쁘진 않군.」

알료샤는 묵묵히 그를 쳐다보았다.

「얘야, 떠나기 전에 한마디 해두겠는데, 난 이 세상에서 너만은 내 편이라고 생각했단다.」 이반은 뜻밖에도 감정이 북받쳐 오른 채 말했다. 「하지만 네 가슴속에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이젠 알게 되었구나, 사랑스런 나의 은둔자야. 〈모든 것은 허용된다〉는 공식을 부인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는 나와 인연을 끊지는 않겠지, 그렇지?」

알료샤는 자리에서 일어나 형한테 다가가서는 말없이 그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문학적 표절이로군!」 이반은 갑자기 환희에 넘치는 표정으로 바뀌며 소리쳤다. 「그건 내 서사시에서 훔친 거야! 아무튼 고맙다. 일어나, 알료샤. 가봐야지. 너나 나나 돌아갈 때가 되었어.」

그들은 밖으로 나왔으나 선술집 계단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애, 알료샤.」 이반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만일 내가 진정으로 끈끈한 새 잎에 집착하게 된다면 너를 회상하며 그것들을 사랑하게 될 거야. 네가 이 세상 어디엔가 살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난 만족해서 산다는 것에 싫증을 느끼지 않을 거야. 너에겐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원한다면 사랑 고백으로 여겨도 좋아. 그럼 이제 너는 오른쪽으로, 나는 왼쪽으로 가는 거야. 그럼 그것으로 끝이지, 끝이고말고. 다시 말해서 만일 내가 내일 떠나지 않고(그런데 아무래도 떠날 듯싶구나) 혹시 너를 다시 만나게 될지라도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제발 부탁이다. 드미뜨리 형에 대해서는 더욱 말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내게 말도 걸지 말아 다오.」 그는 별안간 짜증스런 목소리로 덧붙였다. 「모두 끝났어, 할 이야기는 다 했어, 그렇지 않니? 그런데 내 입장에서 한 가지 약속을 하지. 서른 살이 되어 〈술잔을 땅바닥에 집어 던지고〉 싶어졌을 때에는 네가 어디에 살든 다시 한번 더 대화를 나누러 찾아가마……. 미국에 산다 하더라도 말이다. 이 점을 명심해 두렴. 일부러라도 찾아가려 거야. 그때 널 만나게 되면 무척 재미있겠지. 그때 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이만하면

정말 거창한 약속이 되는 셈이지.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7년이나 10년 정도는 헤어져 있게 될지도 모르겠구나. 자, 이젠 너의 파테르 세라피쿠스Pater Seraphicus[81]한테 가보렴, 그분은 지금 죽어 가고 있으니까. 네가 없을 때 돌아가신다면 내가 너를 붙잡았기 때문이라고 화를 내실 거야. 안녕, 다시 내게 입을 맞춰 주렴. 그래, 그렇게, 이젠 가봐……。」

이반은 갑자기 몸을 핵 돌리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제 갈 길로 가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어제와는 달랐지만 어제 드미뜨리 형이 알료샤와 헤어질 때와 무척 닮아 있었다. 그 순간 슬프고 애달픈 심정에 잠겨 있던 알료샤의 가슴에 묘한 기분이 화살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형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잠시 머뭇거렸다. 그는 이반 형이 어떤지 비틀거리는 것처럼 걷고 있으며, 뒤에서 보니 그의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좀더 낮은 것 같다는 사실을 문득 눈치챘다. 전에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알료샤도 갑자기 몸을 돌려 거의 뛰다시피 수도원을 향해 발길을 옮겼다. 이미 땅거미가 짙게 깔려 있어서 무서운 생각마저 들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이 그의 마음속에 싹트고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해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암자 부근의 숲으로 들어섰을 때에는 어제처럼 바람이 불었고, 수백 년 묵은 소나무들이 그를 둘러싸고 음산하게 울어 댔다. 그는 거의 뛰어가고 있었다. <파테르 세라피쿠스라는 이름을 대체 어디서 들은 것일까, 어디서?> 알료샤의 머릿속에는 이런 의문이 스치고 지나갔다. <이반 형, 가엾은 이반 형, 언제 다시 형을 만날 수 있을까……. 아아, 암자에 다 왔군! 그래, 그래, 그분이야. 그분이야말로 파테르 세라피쿠스이고,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82]로부터 영원히!>

알료샤는 불과 몇 시간 전인 그날 아침만 해도 드미뜨리 형을 반드시 찾아내려고 했고, 설령 그날 밤중에 수도원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지 않고는 결코 읍내를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면서도, 어떻게 이반 형과 헤어지자마자 단번에 드미뜨리 형을 철저히 잊을 수 있었는지를, 훗날 커다란 의문 속에서 평생에 걸쳐 여러 차례 회상하곤 했다.

[66] Notre-Dame de Paris. 우리 나라에서는 『노트르담의 꼽추』라는 제목으로 번역됨.

[67] 여기서 서사시는 <빠에마>라는 러시아 문학의 독특한 장르로, 다소 자조적인 뉘앙스를 띠고 있다.

[68] 그리스도.

[69] 「마태오의 복음서」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70] F. 실러의 시 「동경Die Sehnsucht」에서 인용.

[71] 「요한의 묵시록」 8장 10, 11절, <그러자 하늘로부터 큰 별 하나가 햇빛처럼 타면서 떨어져 모든 강의 삼분의 일과 샘물들을 덮쳤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썩이라고 합니다. 그 바람에 물의 삼분의 일이 썩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 쓴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72] F. I. 쥘체프의 시 한 구절.

[73] A. I. 뿔레자예프의 시 「꼬리올란」의 한 구절.

[74] 「마태오의 복음서」 24장 27절, <동쪽에서 번개가 치면 서쪽까지 번쩍이듯이 사람의 아들도 그렇게 나타날 것이다>.

[75] 「마르코의 복음서」 5장 41절,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탈리다 쿨》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소녀야, 어서 일어나거라》라는 뜻이다.> 마태오의 복음서 9장 25절, <그 사람들

이 다 밖으로 나간 뒤에 예수께서 방에 들어가 소녀의 손을 잡으시자 그 아이는 곧 일어났다>.

[76] 초기 기독교도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리던 지하 묘지.

[77] 「마태오의 복음서」 4장 5, 6절, <그러자 악마는 예수를 거룩한 도시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시오. 성서에 <하느님이 천사들을 시켜 / 너를 시종들게 하시리니 /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지 않았소?」 하고 말하였다>.

[78] 「요한의 묵시록」 7장 4~8절, <그리고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을 받은 자들의 수효가 십사만 사천 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자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 도장 받은 자는 / 유다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 / 르우벤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 / 가드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 / 아셀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 / 납달리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 / 므나쎄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 / 시므온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 / 레위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 / 이싸갈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 / 즈불룬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 / 요셉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 / 베냐민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었습니다>.

[79] 악마.

[80] 「요한의 묵시록」 17, 18장.

[81] 괴테의 『파우스트』 2부 5막에 등장하는 세라피쿠스 신부.

[82] 악마.

=====

대심문관에 대하여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제5권 제5장에 등장하는 '대심문관(The Grand Inquisitor)'은 무신론자와 허무주의자를 대변하는 둘째 이반이 독실한 수도 백치인 셋째 알료샤에게 자신이 쓴 서사시를 들려주는 서사 중 서사(metanarrative) 구조를 취한다. 본 장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교회의 권력 구조, 그리고 구원의 본질에 대한 날카로운 철학적·종교적 논쟁을 담고 있다.

1. 배경 및 설정

배경은 16세기 스페인 세비야로, 종교재판이 극에 달해 매일 이단자들이 화형당하던 시기이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형상으로 다시 강림한다. 백성들은 그를 알아보고 기적을 구하지만, 교회의 수장인 90세의 대심문관(枢機卿)은 예수를 체포하여 감옥에 가둔다.

2. 대심문관의 논거: 세 가지 유혹

대심문관은 밤중에 예수의 감옥을 찾아와 독백에 가까운 심문을 진행한다. 그의 핵심 비판은 "예수가 인간에게 너무 무거운 짐인 '자유의지'를 주어 오히려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점에 있다. 대심문관은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에게 했던 '세 가지 유혹'을

인용하며 교회의 입장을 정당화한다.

(1) 빵의 유혹 (물질적 풍요)

- **사탄의 제안:** 돌을 빵으로 바꾸어 굶주린 인류를 따르게 하라.
- **예수의 선택:**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며 거절하고 정신적 자유를 선택함.
- **대심문관의 비판:** 인간은 자유보다 빵(생존)을 원한다. 예수가 거부한 빵을 교회가 대신 제공함으로써 인류를 복종시켰다.

(2) 기적의 유혹 (맹목적 신앙)

- **사탄의 제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기적으로 신성을 증명하라.
- **예수의 선택:** 기적이거나 이적에 기반한 맹목적 복종이 아닌,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신앙을 위하여 거절함.
- **대심문관의 비판:** 약한 인간은 기적과 신비 없이는 신을 믿지 못한다. 교회는 기적과 신비를 통해 인간의 양심을 지배해 왔다.

(3) 권력의 유혹 (지상 제국)

- **사탄의 제안:** 천하 만국의 권세를 가질 것을 제안함.
- **예수의 선택:** 지상의 권력을 거부함.
- **대심문관의 비판:**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신들을 통합해 줄 강력한 지배자를 갈구한다. 교회는 사탄의 이 마지막 제안(로마의 권력)을 받아들여 지상의 왕국을 건설했고, 이를 통해 인류에게 일시적인 평화를 안겨주었다.

3. 대심문관의 결론과 역설

대심문관이 이끄는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빌려 통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논리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대심문관은 이것이 인류를 향한 자신들의 '희생적 사랑'이라고 주장한다.

고통스러운 자유의지를 감당할 수 있는 강한 인간은 소수에 불과하며, 나머지 대다수의 약한 인간들은 자유 때문에 서로를 파멸시킬 것이다. 따라서 교회가 인간의 자유를 빼앗는 대신 빵과 평화를 제공하고,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짐으로써 인류를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역설적 논리이다.

그는 예수가 도래함 권력 체계와 인류의 안정이 위협받는다 고 판단하여, 이튿날 예수를 화형에 처하겠다고 선언한다.

4. 결말: 예수의 대답

대심문관의 긴 염포와 논리적 비판이 끝날 때까지 예수는 단 한 마디의 반박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킨다. 예수는 조용히 일어나 90세 노인의 피기 없는 입술에 부드러운 입맞춤을 건넨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의 행위에 대심문관은 몸서리를 치며 감옥 문을 열고 "다시는 오지 말라"며 예수를 석방한다. 예수는 어두운 광장으로 사라진다.

5. 서사적 의의

이 이야기는 신의 섭리와 인간의 고통이라는 심오한 주제를 다룬다. 이반은 이 서사시를 통해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그들의 나약함을 간과한 예수'보다,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기만적일지언정 평화를 주는 대심문관'이 더 현실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예수의 침묵과 입맞춤은 이반의 정교한 무신론적 논리를 초월하는 신적 사랑과 자유의지의 가치를 암시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II. 음악 듣기 :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 <현악 사중주 15번>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Dmitri Shostakovich, 1906~1975)의 <현악 사중주 15번 내림마단조(Op. 144)>는 그가 남긴 15편의 현악 사중주 중 마지막 작품이자, 그의 전 생애를 관통한 예술적 고뇌와 죽음에 대한 성찰이 극단적으로 응축된 걸작이다. 1974년 여름에 완성되어 같은 해 11월 레닌그라드에서 타네예프 사중주단(Taneyev Quartet)의 연주로 초연되었다.



1. 창작 배경과 성격: 죽음의 예감과 '백조의 노래'

1974년 당시 쇼스타코비치는 심각한 심장 질환과 골수염 등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쇠약해져 있었으며, 자신의 죽음이 멀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작품은 그의 예술적 유언, 즉 '백조의 노래'이자 스스로를 위한 진혼곡(Requiem)의 성격을 띤다. 그는 초연을 앞둔 연주자들에게 "청중이 지루해서 미칠 정도로, 그리고 연주가 시작되자마자 파리가 공중에서 뚝뚝 떨어질 정도로 아주 느리고 무겁게 연주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작품 전체를 지배하는 극단적인 정적과 적막감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일화이다.

2. 구조적 특징: 6개의 Adagio

작품의 가장 독특한 형식적 특징은 전체 6개 악장이 단 한 순간의 쉼표도 없이 연이어(Attacca) 연주되며, 모든 악장이 '아다지오(Adagio, 느리게)' 혹은 그보다 더 느린 템포 지시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악장	타이틀 (Tempo 지시어)	특징 및 서사적 의미
1악장	Elegy (Adagio)	전체 작품의 절반에 가까운 길이를 차지하는 장송곡. 푸가풍으로 시작하여 극도의 정적과 슬픔을 자아냄.
2악장	Serenade (Adagio)	통상적인 세레나데의 감미로움이 아닌, 날카롭고 기괴한 크레센도 음형(Sforzando)이 유령의 외침처럼 울림.
3악장	Intermezzo (Adagio non troppo)	비올라와 바이올린의 극적인 카덴차가 등장하며, 오페라의 레치타티보를 연상시키는 비장한 악장.
4악장	Nocturne (Adagio)	밤의 정취보다는 죽음 직전의 고요함을 묘사. 약음기를 낀 첼로의 아르페지오 선율이 장엄하게 흐름.
5악장	Funeral March (Adagio molto)	전형적인 장송 행진곡의 리듬을 차용. 쇼스타코비치 특유의 비극성이 정점에 달하는 대목.
6악장	Epilogue (Adagio)	앞선 악장들의 주제들이 파편화되어 재등장하며,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무와 침묵 속으로 서서히 소멸함.

3. 음악적 기법과 텍스처

- **미니멀리즘과 앙상블의 해체**: 네 대의 악기가 긴밀하게 대화하는 전통적인 사중주 기법에서 벗어나, 하나의 악기가 길게 지속음을 내는 동안 다른 악기가 고독하게 독주를 이어가는 방식(Heterophony)을 자주 사용한다. 이는 인간이 죽음 앞에서 마주하는 근원적 고독을 시각화·청각화한다.
- **십자가 모티프(Cross Motif)의 변용**: 베토벤의 후기 사중주나 바흐의 음악에서 발견되는 반응계적 진행을 활용하여, 종교적 구원과 고통의 수용이라는 주제를 암시한다.
- **내림마단조(E_b minor)의 선택**: 서양 음악사에서 가장 어둡고 무거우며, 고통과 슬픔을 상징하는 조성을 채택하여 곡의 비극성을 심화했다.

4. 역사적 및 음악학적 의의

베토벤 이후 현악 사중주라는 장르를 가장 혁신적이면서도 깊이 있게 발전시킨 인물이 쇼스타코비치라는 점을 고려할 때, <15번>은 그 정점에 위치한다. 소비에트 연방의 정치적 압박 속에서 평생을 긴장과 검열 속에 살았던 작곡가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외부의 시선을 완전히 걷어내고 자신의 내면과 '죽음'이라는 실존적 도전에만 집중하여 이룩한 내성적(introverted) 음악의 극치로 평가받는다.

III. 그림 보기 : 이반 크람스코이, <광야의 그리스도> 외



이반 크람스코이, <광야의 그리스도>



일리야 글라주노프(Ilya Glazunov)의 도스토옙스키 삽화 연작 중 <대심문관>

IV. 쓰기 : 대심문관 심문 참관 후기 쓰기